

건강검사, 우리에게겐



● 총 13만여명의 인원에 건강검사

모처럼만의 3일 연휴를 보내고 있는 서울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일 바쁜 사업 일정을 보내는 서울시지부의 검사현황을 취재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 택시에 몸을 실은 기자의 콧끝에는 가을 찬공기가 싸늘하게 스쳐간다.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서울지부청사에는 벌써부터 많은 직원들이 출장검사를 위하여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영세사업장을 제외하고도 무려 서울 제16구, 9지구, 대한항공의보조합, 수출공단의 보조합동 15개조합과, 노인건강검사등 검사인원 총 130,000여명을 이번 기간동안 검사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뛰고 있었다.

사업장별로 검사하는 종목에 따라 검진차량을 배치하고 출장팀을 편성하여 검사일정에 완벽한 준비와 시행을 하는 그 모습은 실로 서울지부에서만 볼 수 있는 대형 퍼레이드 일 것이다.

● 하루 15곳 이상을 다녀야 하는 고된 순회 검진일정

기자는 지난 7월 14,000여명을 대상으로 간염검사를 실시한후 6,000여명을 대상으로

정말 필요합니다.

- 서울 제16지구 의보산하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사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올해 4월 이후 지난 9월까지 각 지구 의보 조합 산하 사업장 근로자를 비롯하여 노인건강검사, 영세 사업장 건강검사 등 총 13만여명에 대한 출장검사를 실시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루에 10군데도 넘는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도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는 검사팀과 하루를 보내면서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인식 정도, 건강 상태 등을 취재해 봤다.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제16지구의보조합원 출장검사팀을 취재하기 위해서 동행기로 했다.

이 정일사업계장, 서 강복주임외 8명으로 구성된 이 팀과 합류해사업장으로 갔다. 이번 추석연휴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묻는 기자의 말에 서 강복주임은 『불효자식이 됐 습니다』라며 체념한듯 시선을 돌린다. 이는 아마도 실패없는 검사일정에 연휴마저 놓 쳐버린 출장팀원의 항변인것 같아 무안한 기분이 들었다.

『일선보건담당자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없다면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더우기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검사기간동안 매일 15~16개 사업장을 순회검사하다 보면 육신이 지쳐버리죠. 곧 알게 되겠지만 사업장이 한군데 몰려 있는것도 아니고 여러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도착하기도 바쁘고 또 건강검사를 받는 조합원들마다 상담을 해오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라며 옆에 있던 이정일계장이 말했다.

● 여건은 어렵지만, 건강검사는 중요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들

출장팀이 처음 도착한 사업장은 영등포구 양평동소재 삼화인쇄주식회사. 이 회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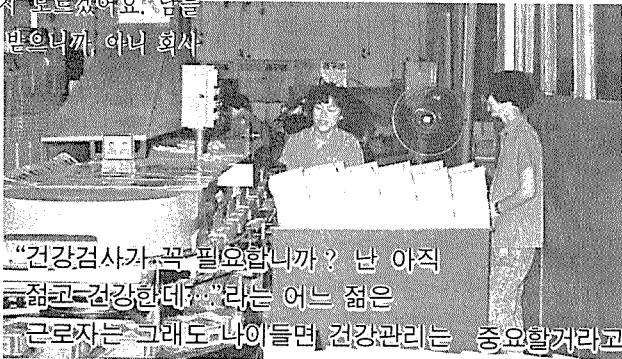
국내 굴지의 전문인쇄업체로서 5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회사 내 식당으로 들어서자 많은 근로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검사를 끝내고 나온 근로자 이 종삼(28세)씨에게 건강검사를 받고 난 느낌을 묻자 『글쎄 저는 아직 몸이 아파서 고생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사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받으니까 어차피 회사



매일 수없이 많은 사업장을 순회하는 고된 일 속에서도 서울지부 검진반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에서 하는 것이라...』라며 자신은 젊고 노동을 할 정도로 강한 체력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기자가 건강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자 그는 수긍을 하면서도 더 나이가 들면 하겠다고 돌아선다.



“건강검사가 꼭 필요합니까? 난 아직 젊고 건강인데...”라는 어느 젊은 근로자는 그래도 나이가 들면 건강관리는 중요할거라고 말하기도...

또 다른 근로자 정인자(47)씨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사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볼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뚜렷한 기술없

이 이 나이에 아녀자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그만큼 경제적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무척 고맙게 생각하죠. 다소 검사하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사뿐만 아니라 검사종목도 확대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 두근로자들의 답변에서 아직도 건강검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보건교육의 필요성과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정기적 건강검사의 필요성을 재삼 느낄 수 있었다.

● 검사 종목 확대 했으면 ...

검사가 끝날 무렵 기자는 의보담당자인 **李 鍾殷(50)**과장대리, **鄭 惠子(23)**양과 자리를 같이 했다. 의보담당자 입장에서 이번 검사에 대한 소감을 묻자 『우선 조합에서 그동안 적립된 의보조합비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사실 그동안 근로자들간에는 매월 징수하는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없지않았습디다만 이번 건강검사를 계기로 많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보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도 말합니다.』

정 혜자양은 말하기를 『저는 좀더 많은 검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검사만 하니카 오히려 다른 부분도 신경이 써져요』라고 말한다. 그래서 기자는 의보조합 환원사업의 배경과 각 조합 재정에 따른 검사실시의 폭에 대해서 설명하자 정양은 『물론 제가 의보업무를 담당하지 얼마 안돼기 때문에 잘모르겠지만 피검사자의 입장에서 더욱 많은 검사를 해주셔서 정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한다.

● 친절과 봉사의 정신자세가 갖추어져야 하는 보건요원들

삼화인쇄(주)근로자들의 건강검사를 끝내고 출장팀은 고척동소재 한강관지(주)를 비롯하여 9개사업장 근로자 400여명을 검사하였다. 동일 의보조합 관할인데도 서로 멀리 떨어져있어 복잡한 시내교통편으로 인한 짜증과 함께 각 사업장을 찾아가기에는 무척 피곤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출장팀과 동행한 기자가 다소 피곤을 느껴 멍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본 서 강복주임은, 『건강검사 출장팀원은 숙달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검사 종목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건강검사를 할
기회가 있나요.”

사람들과의 만남속에서
진정 그들이 원하는 상
담을 해주고 각사업장
간 이동속에서도 피곤
함을 모르는 정신자세
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피검사자들에게 친절과
봉사로써 대하는 일선
보건요원이 됩니다.』라
며 애정어린 충고를 던
진다.

● 밤낮의 구분이 어려운
운전기사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배려를 ...

오늘 출장팀의 마지막 검사대상 사업장인 명라운수주식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해가 질 무렵. 운전기사들이 종사하는 곳이라 근무시간 관계로 검사인원중 50% 정도가 집으로 귀가한 뒤였다. 새벽부터 저



녁까지 운행하는 그들에게 건강검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장팀이 올때까지 기다린 운전기사들이 원성반환영반으로 우리팀을 맞아 주었다.

밤낮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운전기사 생활은 너무도 고되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잊기가 일쑤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 건강검사를 아주 소중하게 받아들인다.

주사바늘이 너무 아프다면서 엄살을 부리는 운전기사 한 용식(42)씨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받고 있는냐는 질문을 하자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한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오랜 운전기사 생활동안 아픈데도 많았고 점점 중년기에 접어드니 힘든것, 아픈곳이 많아 집니다. 그렇지만 건강검사 비용도 많이 들고, 생활하라 자식공부시키라, 어디 내몸이 돈버는 기계밖에 더됩니까? 건강검사는 엄두도 못내는 형편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래도 병에 걸리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더 많은 손해를 보니까 건강할때 건강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자의 말을 듣고 옆에 있던 김 지용(45)기사는, 『알고는 있지만 밤새 운행하고나면 만사가 귀찮아서 꼼짝도 하기 싫어지죠. 남들이 볼때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이 되면 쉽사리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몸이 재산인 저희들이기 때문에 오늘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기 위해서 잠잘 시간도 빼앗기고 여직 남아있지 않습니까?』라며 크게 웃는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시달리는 직업은 아마도 운전기사가 아닐까합니다. 이점에서 우리 운전기사분들에게는 특별히 건강관리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이 회사 의보담당인 정 진숙(40)과장이 말을 이었다.

● 가검을 처리까지 마치고 나면 거리엔 이미 불빛이

검사를 끝내고 나니 타지역 출장팀이 검사를 끝내고 우리팀과 조우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서로들 수고했다며 검사장비를 점검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가운데 해는 벌써 지고 거리에는 어둠이 밀려 네온싸인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귀로에서 이번 검사출장팀을 선두지휘하고있는 서울지부 남 서중사업과장에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검사를 하고 있기때문에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 보았다.

『기자도 이번 출장에 동행 취재해서 잘 알겠지만 이번 출장 검사 기간동안 직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이 없다면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전역에 있는 사업장을 일일이 찾아가서 검사를해야 되는 점도 그렇고 고생해서 찾아가보면 검사인원이 기껏해야 서너명이 되서 허탈감도 생기고 검사자 개개인들이 질문하는 건강상담등, 자칫 봉사하는 입장에서 태만해지고 불평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은데도 아직 우리 지부 직원들은 봉사정신과 극기하는 자세로 출장검사에 임하고 있기때문에 관리자입장에서 고마울 따름입니다』라고 말한다.

● 체계적인 전문 건강관리 시스템 정착에 더욱 노력

이른새벽부터 출근하여 밤늦도록, 오늘 검사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청사에 남아 근무하는 서울지부직원들을 뒤로하고 나오는, 기자는 피곤함 속에서도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건강한 서울시민들을 위하여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연일 계속되는 출장검사의 어려움속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또 찾아올 내일의 출장검사를 준비하는 지부 직원들은 진정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인 것이라고.

한편 서울시지부 서 기흥사무국장은 『본지부직원들은 서울시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많은 난관을 극기의 힘으로 이겨내서 명실공히 검사전문기관인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부는 정부보건정책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건강검사에 참여토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체계적인 전문 검사 system을 통한 조직적 검사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었다.

〈김정현·글〉